

6월 Market Index			
↑ 코스피	2289.97	↑ 코스닥	688.94
	(+25.32)		(+9.02)
↑ 금리 (연-9%)	3.681	↓ 환율 (원-달러)	1268.60
	(+0.037)		(-0.80)

[경제종합]
대출금리 공공행진
예금금리는 하락
금융 소비자 불만
06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9일 월요일

냉혹한 반도체 시장... 삼성·하이닉스 '비상'

4분기 실적 공개 본격화

삼성전자 영업익 4.3조 매출 70조 메모리값 하락에 '어닝쇼크' 기록 메모리 비중 큰 SK하이닉스 위기 LG전자도 가진 침체에 매출 급감

현실은 예상보다 참혹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저조했다. 올해에도 비판적인 전망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분기 매출 70조원에 영업이익 4조 3000억원을 달성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69% 감소했다. 당초 증권가 예상 영업이익인 6조원대보다도 40% 가량 낮았고, 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3분기 이후 최저였다. 연초 목표였던 연간 매출 300조원을 넘었음에도 축하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실적 하락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단연 반도체다. 올 초부터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은 코로나19 '엔데믹'에 경기 침체로 어려웠던 상황, 그나마 반도체가 하락분을 상쇄하며 신기록을 '하드캐리'해왔다. 그러나 4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에 수요 하락으로 결국 전체 실적까지도 주저앉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당초 내년에서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적자' 전망까지 나온다. DS부문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원 안팎에서 수천억원대로 떨어졌으며, 낸드 부문에서는 적자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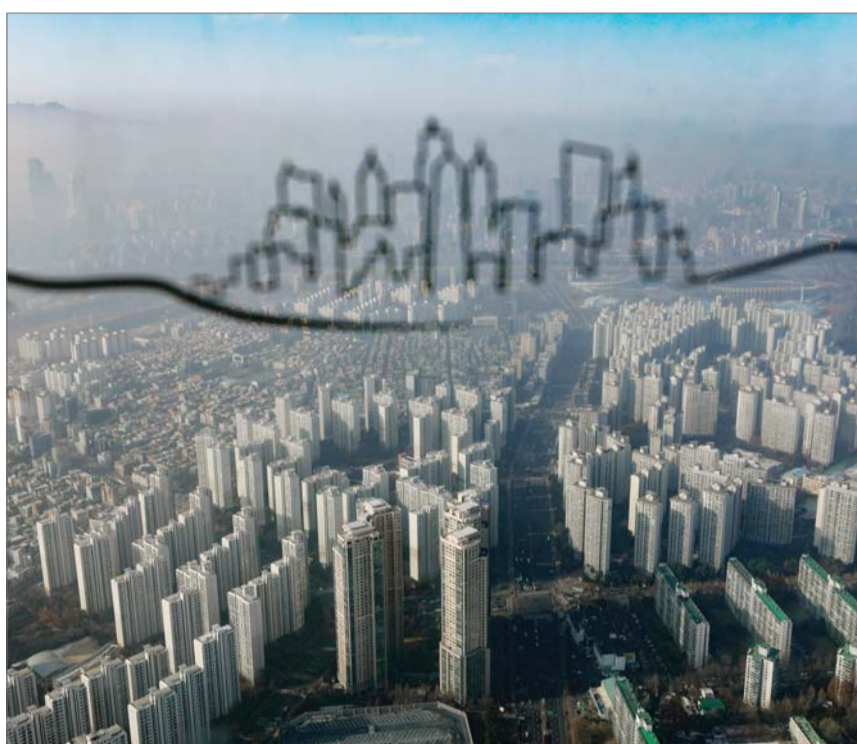
반도체 충격으로 업계 이목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미 글로벌 3대 메모리 반도체 업계 중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발표한 가운데, 서버용 메모리 비중이 적지 않은 SK하이닉스 적자폭이 얼마나 따라 올해 시장 침체 수준도 더 정확하게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기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때문에 임직원들도 주목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 1조 6556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4분기 적자폭은 수천억원에서 2조 5000억원까지 변동폭이 크다. 4분기 적자가 1조 6556억원을 넘으면 하반기 적자, 2조원을 넘으면 연간 영업이익 7조원도 깨질 우려까지 있다.

반도체만이 아니다. LG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655억원에 머무르며 창사 이후 처음 연 매출 80조원 돌파 성공 성과도 빛을 바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91.2%나 줄어든 수치다. 연간 기준 영업이익도 3조 54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적었다.

LG전자 실적 악화 이유는 가전 부문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수요 감소는 물론, 비용 증가에 경쟁까지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특히 TV 사업인 HE 부문에서는 적자 가능성도 유력하다.

그 밖에도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반도체와 IT 관련 업계 역시 4분기 적자에 비견할만한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철강 업계도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진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증권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3% 하락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2.96% 하락했다. 구별로 보면 도봉구가 6.40%로 가장 큰 폭 하락했고 송파구 5.88%, 노원구 5.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2.47%, 강북 14개구는 평균 3.52% 하락했다. 그 중에도 용산구(2.41%)와 종로구(1.02%), 서초구(0.71%) 3곳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는 보고 있다.

그러나 안도하는 업종도 있다. 바로 자동차다. 코로나19로 대기 수요가 줄어 들긴 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나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반도체 공급난도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장 현대자동차가 4분기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이 유

력시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6배, 삼성SDI도 2배를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를 확실하게 할 전망이다. LG전자도 매출 성장과 함께 적자를 면한데에는 전장 사업 성장이 유효했다는 추측이다.

4분기 총격은 이제야 시작이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내년 상반기 이후에 주목하고 있다. **<5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새해 첫 금통위 금리 인상 유력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전망이다. 5%를 넘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사이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달 기준금리는 소폭 올리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하겠다"고 했다.

◆인플레 지속...금리인상 불가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109.28로 1년전과 비교해 5%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로 1년전과 비교해 6.3% 상승한 뒤, 5%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 오는 13일 금통위 개최 고물가에 한미 금리차 등 부담 금리 0.25%p 소폭 인상 전망

통상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데에는 6개월가량 소요된다. 지난해 4월부터 6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0%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에 힘을 실는다. 지난해 미국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해 4.25~4.5%가 됐다. 미 금리상당과 우리나라 기준금리(3.25%) 격차는 1.25%p다.

더구나 지난 4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나 적절하다고 전망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오는 2월과 3월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빼 원화 가치가 떨어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준금리의 인상폭은 0.25%p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6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존재감 빛난 韓기업... 초연결·지속가능 신기술로 압도

CES 2023 폐막

삼성, 참가사 중 최대규모 전시관 LG, '초대형 올레드'로 눈길 잡아 SK, 친환경 초점 체험·시연 다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이 8일(현지시간) 화려한 막을 내렸다. 'Be in it(빠져들어야)'라는 슬로건으로 내건 'CES 2023'는 모빌리티, 메타버스, 휴먼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선보였다. <관련기사 2, 3, 4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CES 2023'은 축구장 26개를 합친 규모의 전시 공간(18만 6000㎡)에 전세계 170여 개국의 30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각종 기술을 뽐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 SK그룹, HD현대그룹, 현대모비스, 롯데헬스케어 등 5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친환경을 기반으로한 체험과 시연에 초점을 맞췄다.

총수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국내 4대 총수중 유일하게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정기선 HD사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CES 전반을 살펴보고 체험했다.

삼성전자는 CES참가 업체중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꾸몄다. LG전자는 압도적인 초대형 올레드 조형물로 관

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SK그룹은 친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체험존을 늘렸다.

삼성전자는 '연결성'을 강조하며 2023년형 Neo QLED 8K부터 패밀리 허브 등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LG전자는 '라이프스 굿(Life's Good)'을 슬로건으로 잡고 세계 최초 무선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M', 세계 최대 97형 LG 올레드 TV, 88형 등 다양한 올레드 TV를 전시했다.

SK그룹은 친환경이라는 큰 분야로 총 8개의 계열사들과 CES2023에 출격했다. 체험에 무게를 실었다. '행동(Together in Action : 함께, 더 멀리, 탄

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을 주제로 그룹 통합전시관을 공동 운영했다. SK그룹은 총 6개 구역에서 40여 개에 이르는 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공개했다. 최 태원 SK그룹 회장은 "CES는 첫 방문. 듣던대로 많은 기업들의 좋은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SK부스도 잘 보여준 것같아 기쁘다. 탄소 감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분야도 빛났다. LG이노텍은 첨단 카메라모듈 등 자율주행 시대를 책임질 다양한 전장 부품들을 전시했다. **<4면에 계속>**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itna@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오늘 고위당정협약... '교육 개혁·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논의 /사진 뉴시스
▲ 민주당, 與 9일 열리는 임시국회 동참 촉구... 안보·민생경제 빨간불

▲ 민주,尹 북한 무인기 침범에 NSC 소집 안해... 군미필 대통령이 독단 지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39번째 생일... 명절화 지정 안돼, 언급 없어



▲ 남북관계 경색에 전쟁 우려 ↑... 중점관리인력 통지도 '긴장'
▲ 교육부, 새 교과서 제작 첫발... '5·18' 포함 방식은 숙제 /사진 뉴시스